

* 팀NO : 2018- 02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라오스 (/ 팀) 공항 : 르왕프라방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르왕프라방

3. 사역기간 : 2018년 2월 10일(토) ~ 2월 17일(토) / (7)박(8)일

인천

담당

분과장

위원장

이성득 11/26

김영환

이성석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집사	신현욱 SHIN HYUN UG	10	수료	79-156					
2	총무	집사	김천이 KIM CHEON LEE	10	미수료	2012-65					
3	서기	권사	임남향 LIM RAN HANG	10	미수료	87-294					
4	회계	권사	김정순 KIM JEUNG SUN	10	미수료	82-201					
5	의료	권사	신은자 SHIN EUN JA	10	미수료	84-247					
6	찬양	권사	박영순 PARK YOUNG SOON	10	미수료	82-242					
7		권사	박재순 PARK JAE SOON	10	미수료	93-651					
8		집사	정영자 JUNG YOUNG JA	10	미수료	93-315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김창국

선 교 소 감 문

저희 선교팀은 2018.2.10(토)-17일(토) 7박8일간 라오스 르왕프라방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월11일(주일)-12일(월) 양일간 파평롬교회에서 어린이사역 및 교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족사진을 촬영 만들어 주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2월13일에는 방비엥에서 고아사역을 하시는 분넛전도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향후 미션센터 건립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속히 착공하기를 기도 하였습니다.

2월14일은 박후와이커 교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터 및 제반 장비를 설치하는 중 경찰이 방문하여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모든 장비를 챙겨서 교회를 떠나오면서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서 속히 라오스땅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15일에는 반 후와이 타오 교회를 방문하여 준비하여간 어린이 사역 및 교회 체육행사를 통해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접 기도및 복음 팔찌, 색칠 공부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약 3개월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율동 우쿠렐레 복음팔찌 색칠공부, 가족사진촬영 현지전도지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축구, 등 다양한 준비를 통하여 라오스 르왕프라방에서 사역중인 이상범 선교사님과 이행숙 사모님의 선교사역에 협력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였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울러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선교준비물을 제공하여 주셔서 잘 사용하고 전달하였으며 다음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항상 시간을 정하여 라오스에 고난 받고 핍박받는 믿음의 지체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라오스국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 하는 라오스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소감문

집사 김천이

협력선교사가 거주하는 루왕프라방에서 약 80km 떨어진 무양난의 파뎜 롱 교회는 포장된 국도에서 벗어난 산길로 10km 정도 올라가서 나타난 평원지역에 자리한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교회는 예상보다 컷고 넓은 뜰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도심에서 멀기도 하고 산속에 있어 외국인의 발길이 여간해서 닿지 않는 곳이라는데 교회 사역자의 신실함이 그 지역의 중심교회로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자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배는 우리와 사뭇 다르게 진행됐지만 진지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간식을 먹고 교회 뜰에서 마을 주민들과 줄다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운동회를 하며

그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며 하나가 되어가며 이곳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들의 맑은 눈과 부끄러움 없이 목청높이 따라 외치는 복음과 찬양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한없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여러차례 선교를 다니면서 축호전도, 노방전도 등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지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려 애써왔었지만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미약하였다.

이번에는 라오스에서 9년째 현지인과 더불어 생활하며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사역자의 발굴과 지도하고 있는 이상범 선교사 부부와 함께 협력 선교를 실시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선교사님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고, 결과는 온 마을의 축제가 되었다.

처음 함께한 협력선교라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서로 의논하고 준비하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현지 선교사께서 능숙한 현지 언어로 설교와 기도를 해 주시는 것과 또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선교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며 더 많은 선교지역에서 우리 교회 단기선교 팀을 기다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 소감문

권사 임난향

지난 번 선교를 함께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지 못하게 됨을 보고 선교는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함을 깨달으며 이번 선교를 위해 라오스에 오게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처음 협력선교사인 이상범 선교사님 댁에서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것을 보며 선교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인 파뎜롱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 외치는 복음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와 함께 풍선 터뜨리기 게임 등 운동회와 찬양과 율동을 함께하고, 낯선 이방인들과 부등켜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들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준비한 색칠공부를 진행하면서 아이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집중하여 참여하는 것을 보며 큰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 째 찾아간 뻍후와이커 교회에서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쫓겨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가 주 사역지로 생각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 갔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지만 나에게 라오스는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나태함에 빠져 느슨하게 믿음생활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라오스 땅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소감문

권사 김정순

매번 선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기 보다는 주님의
예비하심 따라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라오스 단기선교는 두 번째로 이번 사역은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구 식구들이 후원해준 물품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찬양, 복음제시 등을 마치고
줄다리기, 2인3각 경기, 줄넘기 등 운동회를 하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하여 천진난만하게
노는 것을 보고 모두들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력 선교사님께서 오랜 시간 수많은 고난 속에서 세워놓은 사역지에서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과 늘 함께 동행 하시어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오스를 우리 교구의 선교지역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교구 식구들이
라오스 영혼들을 품고 “가는 선교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라오스 영혼들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이루도록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선교 소감문

권사 박재순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전 라오스를 처음 왔을 때에는 정탐사역을 위주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라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번 사역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소망부 어른들까지 우리들이 준비해간 프
로젝트 화면으로 보여준 복음제시를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이 곳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보고 너무나 감사 하였습니다.

파뎀롱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
고 이들이 복음의 씨가 되어 라오스 땅이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
에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회인 뽉후화이커 교회를 찾아 갈을 때 다시 한 번 어
려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학생, 어른들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우리들에
게 철수를 요구하여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쫓기듯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핍박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곳 라오스 땅이 하루 빨리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
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범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많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소 감 문

박영순

복음의 빛진 자로 부족 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에서는 어린이 사역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복음 제시 영상 , 샌드 아트, 그림그리기, 복음 링 등)과 또 즐거운 게임과 사진 제작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영상에 비친 복음을 보고 온 성도들이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가는 모습들은 정말로 감동 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기록하신 말 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라오스 방비엥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 본넛 전도사의 교회 설립 예정지를 방문 하여 우리 선교 팀은 손에 손을 잡고 뜨겁게 찬양하며 이 곳 라오스중심에 미션센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찾아간 팍후와이커 교회에는 3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경찰이 들이닥쳐 시작도 하기 전에 그곳을 나와야만 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라오스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잃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성도 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태하고 안일한 믿음을 회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은혜로운 사역이었고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복음화와 핍박 받는 라오스의 영혼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 해 봅니다.

<라오스 선교를 다녀와서> 정영자집사

우리의 시골처럼 정겨운 라오스에 도착한 우리는 선교사님덕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선교사님의 선교브리핑에서 선교사님의 눈물과 기도로 복음이 심겨진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아파 신음하는 땅이었습니다.

첫째날은 파땡롬교회에서 주일예배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성경암송, 말씀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2시간동안 드리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복음제시때는 온 성도가 혼연일체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느꼈습니다. 이어지는 복음의 색칠공부, 가족사진찍기, 체육활동등은 온마을 잔치로 ... 파땡롬교회 2일 사역은 바로 천국잔치였습니다.

- 굽이굽이 높고 위험한 산길과 안개로 한치 앞도 안보이는 길... 긴시간을 거쳐 도착한 방비엥은 하나님께 헌신한 분렬전도사님이 계셨고 미션센타 건축예정지에서 발견된 폭탄. 우리 그땅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방비엥 미션센타를 통해서 라오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 이번 사역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곳은 바로 뻍후와이커교회였다. 우리 도착해서 PPT스크린, 환경장식등 천국잔치 준비를 다하고 복음제시 들어가는 순간 - 경찰이 와서 허락받지 않았으니 빨리 철수하라고 명했다.

사탄의 방해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뻍후와이커교회 성도들과 학교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우리도 같이 돌아와야만 했다. 내 마음도 우리팀의 마음도 넋을 잃고 있는 그곳의 많은 영혼들도 아프고 힘든데 주님의 얼마나 아프실지...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속상하고 화나고 슬펐다...

주님!!!! 사탄의 방해 이 또한 아버지가 허락하셨나요?
그러나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아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수 있다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하지 못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 뻍후와이커교회가 더욱더 반석위에 굳게 세워질 것을 믿는다.

- 뻍후와이커에서 못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후아이타오교회였다. 기독교인 핍박을 피해서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깊은산속의 아름다운 신앙공동체인 후아이타오에서 우리의 천국잔치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배우고 즐거운 체육활동등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서 천국잔치를 열었다. 후아이타오교회에서는 핑계하면서 천국잔치에 빠지는 자도 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였다.

- 루왕파방시내에 반마교회 건축중인 우타이전도사님과, 유아원과 교회도 속히 건축되어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 현지인을 제자삼으셔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라오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선교사님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라오의 교회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정말 편하게 천국잔치를 맛보게 해주신 이상범,이행숙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가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되어 핍박받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아멘